

WBC 일정 확정
 한국, 대만서 1R

내년 3월 열리는 제3회 월드베이스볼 클래식(WBC) 일정이 최종 확정됐다. WBC 대회 운영회사인 WBCI는 26일(한국시각) 한국 등 16개국이 참가해 내년 3월2일부터 19일까지 치러지는 대회 일정을 발표했다.

호주, 네덜란드, 지역예선 1위(미정)와 함께 B조에 편성된 한국은 3월2일부터 5일까지 대만 타이완의 인터컨티넨탈구장에서 라운드로빈 방식으로 본선 1라운드를 치른다.

B조의 나머지 한 자리는 11월 중순 뉴질랜드, 필리핀, 태국과 4조 지역예선을 벌이는 대만이 확실시된다.

한 조에 속한 팀이 모두 한 번씩 대결하는 라운드로빈 방식으로 치러지는 1라운드에서 B조 1·2위는 일본, 중국, 쿠바, 지역예선 1위(미정)가 포함된 A조 1·2위와 3월8일부터 12일까지 일본 도쿄돔에서 본선 2라운드를 치른다.

본선 2라운드는 2009년 제2회 WBC와 마찬가지로 패자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더블 엘리미네이션' 방식으로 진행된다.

C조에서는 푸에르토리코, 도미니카공화국, 베네수엘라, 지역예선 1위(미정)가 3월7일부터 10일까지 푸에르토리코 산후안 이람비온 스타디움에서 격돌한다.

D조는 세계 최강 미국과 이탈리아, 멕시코, 지역예선 1위(미정)가 3월7일부터 10일까지 미국프로야구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의 홈구장인 체이스필드와 2군리그 경기장인 솔트리버 필드에서 본선 2라운드 진출자를 가린다.

준결승과 결승은 미국 샌프란시스코 AT&T 파크에서 3월17일부터 19일까지 열린다.

/연합뉴스



KIA 타이거즈 김진우

김진우 '폭포수 커브' WBC 무대 이어질까

9승 완투... 태극마크 욕심

부활한 '괴물' 김진우의 기세가 WBC까지 이어질까?

KIA 타이거즈 우완 김진우의 후반기 질주가 거침없다. 김진우는 25일 대구구장에서 열린 삼성과의 경기에 선발로 나서 5-1 승리를 이끌며 시즌 9승에 성공했다. 완봉승에 아웃카운트 하나가 부족했지만 7년 만의 완투승으로 괴물의 부활을 알렸다.

김진우는 팔꿈치 부상으로 잠시 2군에 다녀온 이후 후반기 10경기에 등판해 5승1패를 기록하고 있다.

1패도 불운이 겹친 패배였다. 20일 삼성과의 홈경기에서 김진우는 7.1이닝 2실점의 피로를 선보이고 불펜 난조와 타선의 침체로 어렵게 패전투수가 됐다. 구원으로 등판

했던 한화전 포함, 후반기 10경기의 방어율은 1.31. 탈삼진도 45개를 뽑아냈다.

김진우의 전매특허인 폭포수 커브가 견제할 가운데 이닝이 거듭돼도 위력을 잃지 않는 직구, 여기에 싱커까지 새로 장착하면서 제2의 전성기를 보내고 있다.

에이스 윤석민이 주축한 사이와피를 앞세운 김진우는 KIA의 가장 믿음직한 선발이자 올 시즌 프로야구 무대에서도 손꼽히는 우완투수로 자리매김했다.

최근 페이스라면 10승은 물론 태극마크까지 욕심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입단 첫해인 2002년 177개의 탈삼진과 함께 12승을 찍은 김진우는 2003년(11승)과 2006년(10승)에 두 자릿 수 승수를 채웠다. 남은 등판에서도 승리를 챙기게 되면 6년 만에 10승 고지를 밟게 된다. 그 기세를 이어

태극마크까지 노려볼 수 있다.

김진우는 2002년 '특급 투키'로 부산 야시안게임 대표팀에 선발돼 태극마크를 달았다. 중국과의 경기에서 승리투수가 됐던 김진우는 야시안게임 금메달과 함께 병역혜택을 받았다.

이번에 노리는 무대는 야구 종주국인 미국과 아시아 최강 일본이 버티고 있는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이다.

KBO 기술위원회는 내년 3월 대회를 앞두고 50명의 WBC 대표팀 1차 명단을 정해놓고 육성을 가리고 있다.

기술위원회가 올 시즌 성적이 절대적인 선발 기준이 아니라고 밝히기는 했지만 일단 김진우는 50명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28명의 최종엔트리는 11월 말 확정될 예정이다.

방향을 끝내고 돌아 온 김진우가 10승을 넘어 태극마크 꿈까지 이룰 수 있을지에 야구팬들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야구·축구·골프·씨름 '빅매치'
 한가위 스포츠 잔치 '풍성'

올해 한가위 명절에도 풍성한 스포츠 잔치가 이어진다.

프로야구, 해외 축구와 골프, 씨름 등 여러 종목에서 스포츠 팬들의 시선을 잡아끌 경기가 연달아 펼쳐진다. 오랜만에 자리를 함께한 가족, 친지들과 가까운 경기장으로 나들이를 가거나 TV 앞에 모여 앉아 '빅 이벤트'를 관전하는 것도 추석 연휴를 즐겁게 보내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프로야구 = 역대 최대 관중 신기록을 세우며 연일 '흥행 흥란'을 치고 있는 프로야구는 추석 연휴에도 쉬지 않는다.

25일까지 이번 시즌 681만 2530명의 관중을 야구장으로 불러모아 사상 최초의 700만 관중 시대를 향해 달려가는 프로야구는 정규리그 막바지 경기가 진행된다.

KIA는 연휴가 시작되는 29일 무등야구장에서 2위 SK와 만난다. 추석이 30일과 1, 2일에는 군산으로 자리를 옮겨 롯데와 3연전을 갖는다.

미국과 일본에서 뛰는 추신수(클리블랜드), 이대호(오리츠)의 시원한 한 방도 추석 명절을 맞은 국내 스포츠 팬들에게 좋은 선물이 될 것이다.

◇해외축구 = 유럽에서 뛰는 '태극 전사'들 역시 추석 명절도 없이 팬들에게 골 소식을 전하고자 그라운드를 누빈다.

승리가 절실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바지성(퀸스파크 레인저스)은 오는 10월2일 오전 4시(이하 한국시각) 웨스트햄을 상대로 홈 경기를 치른다. 2루3루로 20개 팀 가운데 19위로 처져 있는 퀸스파크 레인저스가 이번 명절에 시즌 첫 승을 거둘 수 있을지 기대된다.

스페인과 독일에서도 박주영(셀타 비고), 손흥민(함부르크)이 출격한다. 지난 22일 헤타페와의 경기에서 프리메라리가 데뷔골을 터뜨린 박주영은 오는 30일 오후 7시에 그라나다를 상대한다. 또 같은 날 시즌 2, 3호골을 몰아친 손흥민은 29일 밤 10시30분 하노버96과의 경기에서 상승세를 이어갈 때세다.

◇골프·씨름 등 = 골프는 미국과 일본에서 빅 매치가 펼쳐진다. 미국과 유럽의 골프 대항전 라이더컵은 28일부터 사흘간 미국 시카고의 메디나 골프장에서 열린다.

미국과 유럽의 대항전이라 한국 선수들은 물론 출전하지 않지만 타이거 우즈(미국)와 로리 매클로이(북아일랜드)의 '신·구 골프 황제' 대결이 불만하다.

일본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의 요코하마 골프장에서는 27일부터 나흘간 제45회 일본 여자오픈골프 선수권대회가 펼쳐진다. 신지애, 최나연 등이 청아나(대만), 미야자토 아이(일본), 평산산(중국) 등 세계 정상급 선수들과 샷 대결을 벌인다.

추석 장사씨름대회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상주실내체육관에서 열린다.

/김일환기자 kih8@kwangju.co.kr·연합뉴스

◇추석 연휴 주요 경기(29일~10월1일)

◆29일(토)
 ▲프로야구 = KIA-SK(광주·17시)
 ▲씨름 = 2012 추석장사씨름대회(10시·경북 상주 실내체육관)

▲해외축구 = 함부르크-하노버96(손흥민) 호펜하임-아우크스부르크(구자철·이상 22시30분) 스토크시타-스완지시티(기성용) 선덜랜드-위건(지동원) 볼턴-크리스탈 팰리스(이청용) 카디프시티-블랙풀(김보경·이상 23시)

▲미국프로야구 = 클리블랜드-캔자시티(8시5분)

◆30일(일)
 ▲프로야구 = KIA-롯데(군산·17시)
 ▲씨름 = 2012 추석장사씨름대회(11시·경북 상주 실내체육관)

▲해외축구 = 그라나다-셀타비고(19시·박주영)

▲미국프로야구 = 클리블랜드-캔자시티(8시5분)

◆1일(월)
 ▲프로야구 = KIA-롯데(군산·17시)
 ▲씨름 = 2012 추석장사씨름대회(14시10분·상주실내체육관)

▲미국프로야구 = 클리블랜드-캔자시티(2시5분)

▲해외축구 = 퀸스파크 레인저스-웨스트햄(2일 4시)



패럴림픽 광주선수단 환영

26일 빛고을 체육관에서 열린 패럴림픽 광주선수단 환영식이 열렸다. 광주 선수단은 이번 대회에서 금, 은, 동 1의 성적을 내며 한국의 선전을 이끌었다. /L명주기자 mjna@kwangju.co.kr

2014 소치 동계올림픽 슬로건 "뜨겁고 차갑게, 그대의 것"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의 슬로건이 "뜨겁고 차갑게, 그대의 것(Hot. Cool. Yours.)"으로 확정됐다.

드미트리 체르니셴코 소치올림픽 조직위원장은 26일(한국시각) 열린 개막 D-500 행사에서 이를 발표했다.

슬로건 중 '뜨겁게(Hot)'는 상대적으로 따뜻한 소치의 날씨와 참가자들의 열정을 뜻한다.

반대로 '차갑게(Cool)'를 통해 추운 겨울을 넘어지는 동계스포츠를 상징한다. 마지막으로 '그대의 것(Yours)'이라는

단어를 통해 모두가 함께 즐기는 대회가 되길 바라는 조직위의 바람을 담았다.

체르니셴코 위원장은 "특해 연안 리조트에 건설중인 시설의 공정률이 70%에 이르는 등 모든 준비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태리가구
40% OFF
 ~ www.hong79.com(홍천구닷컴) 10월 25일까지 동구청앞
 홍스페이스 SPACE 1899-0240

모던가구
 11월판매 40% 예약판매
 다른가구는 절대 못 보십니다.
 홍스페이스가 30년만에
 모던가구를 처음으로 선보입니다.